

절세위인을 모시여 조선은 밝고 미래가 창창하다

얼마전 어느 나라의 인터넷에는 너무도 상반되는 두 너성의 글이 실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나는 지금 캄캄한 어둠속에 홀로 있다. 악성병마에 남편과 자식을 잃고 폭우와 큰물에 집과 가산까지 잃었으니 새해가 밝아 왔지만 살길은 너무도 암담하다. 한치라도 가능할수 없는 나의 삶은 정말 지겹다.」

한 자본주의나라 녀성의 눈물에 젖은 이 목소리와는 상반되는 글도 찾아볼수 있다.

「나는 두눈을 볼수 없는 장애인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 나의 마음에 광명을 주고 따스함을 주는 공화국이야말로 내 삶의 정든 보금자리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한 장애자녀성의 토로이다.

인터넷에 실린 두 녀성의 대조되는 말에서 보듯 삶을 누리며 희망에 넘쳐 사는 인민과 비참한 운명속에서 몸부림치는 인민의 판이한 두 모습을 보게 된다.

* * *
사람들은 누구나 밝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다시말하여 따뜻한 사랑과 정,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 행성우에는 인류가 기원하고 꿈과 리상으로 그려보던 그리한 밝은 세상이 있으니 그것은 다른아닌 조선이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공화국은 행성의 곳곳에서 불행과 고통의 아우성소리, 절망과 비애의 한숨소리가 울려나올 때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아름답고 밝고 밝은 세상으로 우뚝 솟아올수 있었는가.

그것은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자신의 심신을 강건히 불태우시며 인민들에게 사랑과 정을 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안아오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첫 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지난해말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

직 마음속에 인민만을 안으시고 새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만들수 있는 확고한 전망목표들을 제시하시어 국가와 인민이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무엇을 하나 설계하여도,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무슨 일을 하여도 인민의 편익과 리익을 먼저 생각하시며 위민현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그이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한 헌신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의 고생을 풀어 인민들의 소원과 행복을 꽃피워가게하신다.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 나에게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 나는 이를 악물고 허를 깨물면 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투철한 인민관이다.

오늘도 공화국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뜨거운 격정으로 끓여주는 말씀이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우리당이 신성하게 내세우고 있는 위민현신의 리념은 실지 뼈를 쥐고 살을 지미면서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인민을 받드는 실천의 지침이고 행동의 기준이라고, 당이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고 늘 곁에서 고통을 함께 하며 인민의 복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다. 실지 뼈를 쥐고 살을 지미면서.

이런 비상한 각오를 안으시고 어니 하루, 한순간도 인민을 위한 사색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자신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뜻밖의 자연재해로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을 때에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은 가려주는것보다 더 중대한 사업은 없다고 하시며 억만금을 쏟아부어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마련해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

태평회개 채 가져가지 않은 험한 진창길, 임시복구된 위험천만한 협곡철길을 달리시어 복구건설장들을 찾으시고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며 어렵고 힘든 매일수룩 일군들이 인민들결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간곡히 당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 최약의 시련이 겪잡었던 지

난해에도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정책을 변함없이 실행하도록 하시었다.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 닥쳐왔던 지난해 5월 어느날 인민사수의 최전방에서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첫머리어린이들을 위해 예기껏가루, 암가루를 공급할때 대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사실 악성전염병을 치료하면서 남모르는 피로움을 안고 모대건사람들은 다른아닌 갓난애기들을 키우는 녀성들이었다.

고열로 고통을 겪는것은 참을수 있지만 그 고열을 떨구느라 항생제를 쓰면 것이 가는것이 정말 말할수 없이 안타까웠다.

그 피로움까지 다 헤아리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예기껏가루를 보내주시었을 때 예기 어머니들과 그 가족들은 말보다 눈물이 앞서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말도 다 하지 못하였다.

그 나날 인민은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위민현신, 그것은 천만아들딸

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피며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가꾸어가는 위대한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이라는것을.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없이 높은 요구를 제기하시고 하나를 마련하시던 열백을 더 주고싶으시어 세라새로운 번영의 설계도를 펼쳐치시며 위대한 사색과 창조달과 달을 이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머나먼 현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길에 수도의 불빛같은 방기리에 울리는 노래소리를 들으시며 《세상에 부럼없어라》로 구만, 참 좋은 노래요, 저 노래소리를 들으니 이 노래가 우리 인민들의 실생활로, 현실로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더 고생하고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되오라고 뜨거운 심정의 고백을 터놓으시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의지를 안으시고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위민현신의 거룩

한 력사를 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같은분이 이 세상 어디에도 있으랴.

인민을 위하여 언제나 만짐을 지고 험한 길을 헤치시면서도 행복에 겨워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슴뭉클 짓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사는것이아말로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고 행운인가.

강산을 울리고 만사람을 감복시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열과 정에 끝없이 매혹되어 인민은 그의 두리에 더욱 철똥같이 뭉치었다. 경애하는 그의 인민사랑속에 승리에 대한 막판이 더욱 넘쳐나고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욱 높이 울리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인민을 받드는 높이가 어떠하여야 하고 인민을 위해 바치는 마음이 얼마나 순결하고 불같은 것이어야 하는가를 위대한 현신의 자욱자욱으로 이 땅에 무엇이 새겨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인상은 예육원, 육아원과 양로원에도 뜨겁게 어려

서 고아라는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어렵게 보아왔던 같은 처지의 이 아이들의 모습이 이 나라에서는 제일 밝다고, 바로 여기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에 대하여 알게 된다고 말한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적대세력은 감히 공화국의 《종말》과 《붕괴》를 운운하고 있다.

하나 사상초유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하고 위대한 승리와 변혁을 이룩한 2022년을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차민치는 소년단대대로 마감하고 새해 2023년의 문을 령도자와 아이들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세계 어디에서 볼수 없는 격동적인 화폭으로 연 공화국의 현실은 행성에서 오늘날은 물론이고 레일도 휘황한 나라가 어느곳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으며 국가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키워가고있다. 인민우에, 인민앞에 후대들을 놓으며 후대사랑의 힘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밝은 나라, 전도가 양양한 나라이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후대들이 50년이건, 500년건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는것이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공화국의 빛나는 천만년미래를 보게 하고있다.

하기에 어머니를 따르는 자식들마냥 이 나라의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며 모든 영광과 행복을 맞이하고 있다.

인민의 태양,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나라,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고 역센 기상이 하늘에 닿은 존엄높은 나라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해축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련일군들의 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제 112(2023)년 새해축전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련일군들의 모임이 20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주호제1부위원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부위원장 겸 사무총국장, 조일연 부위원장, 송근학부위원장 겸 교육국장, 서충언부위원장 겸 국제통일국장, 강추련부위원장 겸 제일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명우 총련중앙국장들, 제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 간포지방 총련본부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제일군들, 각급 학교 교장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연주되었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일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 보내주신 새해축전이 정중히 전달되었다.

박주호제1부위원장 겸 조직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주제 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의 첫아침에도 새해축전을 보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뜨겁게 축복해주시였으며 조국과 더불어 제일조선인운동도 전면적발전기로 비약하도록 힘있게 불려일으켜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에 전후후무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공화국창건 7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는 경사스러운 올해에 총련이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로서의 본태를 더욱 뚜렷이 과시하며 애국사업전반을 상승케도에 확고히 울려세울때 대한 영예롭고 중대한 과업을 주시였다고 그는 밝혔다.

여기에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조선혁명과 더불어 제일조선인운동도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총련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더욱 특출

히 세우고 애국애국사업에서 비약적발전을 가져오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가 깊이 새겨져있다

그는 총련에 있어서 올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축전을 높이 받들고 애국애국운동앞에 가로놓인 온갖 난국을 파급히 타개하여 뚜렷한 실적을 이룩하여야 할 투쟁의 해이라고 말하였다.

총련이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서의 본태를 더욱 뚜렷이 과시하며 애국사업전반을 상승케도에 확고히 울려세우는것을 올해의 기본사업방향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각급 조직들과 단체, 사업체들을 일심단결의 성세, 애국애국의 성들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는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총련의 모든 일군들이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제, 령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제일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각급 단체, 사업체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일심일체의 집단으로 튼

튼히 꾸리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령적인 5.28서한에서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백과전서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총발동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선형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력사적인 시한발표 1돐을 맞으며 제일조선인운동에서 반드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총련일군들은 모든 활동을 동포제일주의로 복종지향시키며 동포들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교육권과 기원권, 생활권리옹호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려일으킬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총련일군들은 특히 올해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서 특색있게 이바지하는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총련의 전체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가슴 불태워 경사스러운 올해에 총련의 본태를 더욱 뚜렷이 과시하며 애국사업전반을 상승케도에 확고히 울려세우으로써 주제적 제일조선인운동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기록하기 위해 총대진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해외전사들로서의 사랑과 본분을 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새해축전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간고분투하여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었다. 본사기자

조선의 국위와 영광이 더 높고 떨쳐질것이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제조선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화같은 호모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이 축하편지들에서 2022년의 위대한 혁명실적을 수놓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령도력을 격찬하면서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국제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지난해 류례없이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국부력강화에 힘을 넣어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등 혁명파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켰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 따라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용대한 과제들을 자기의 시간표대로 훌륭히 수행하였다.

지난해 조선이 거둔 성과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일치단결하여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에서 팔복합한 전진을 이룩한것이다.

은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견인하는 조선의 모습은 진보적인인류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기적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각하의 위인상을 다시 한번 깊이 절감하였다.

에zell자우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현명한 령도로 2022년의 조선의 발전과 인민의 부흥을 안아오신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들은 진정 력사의 기적이다. 새해에도 진보적인인민들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의 꿈과 리상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에zell사회주의로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정당 당수들도 2023년은 조선인민이 영웅적투쟁의 서사시를 수놓는 해로 될것이다, 새해에도 조선의 국위와 영광은 더 높고 떨쳐질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인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인민의 앞날은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고 격찬 하였다.

본사기자